



▲ 지난 달, 우리 학교 내 창조관 일대에 조성된 '한비탕 전주 여름철 물놀이장'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관련기사 2면. (사진: 손민기 기자)

2023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중간감사 종료

중앙감사위원회(위원장 국단오, 이하 '중감위')는 지난 7월 7일(금),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3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대상은 총학생회와 중앙동아리연합회, 중앙운영위원회 산하기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자치기구(도서관자치위원회, JJ축구리그위원회), 8개 단과대학 학생회다. 감사 규모는 총액 373,193,246원(학생회비 51,474,230원, 학회비 217,960,092원, 신입생회비 및 기타 61,127,146원, 이월금액 42,631,778원)이다.

먼저, 총학생회는 총예산 12,069,446원(학생회비 12,069,446원) 중 학생회 사용금액 0원(0%), 감사점수 100점으로 A+등급을 받았다. 중앙동아리연합회는 총예산 13,370,042원(학생회비 4,910,682원, 신입생회비 및 기타 6,600,000원) 중 학생회 사용금액 0원(0%) 학생회비 감사점수 84점, 신입생회비 및 기타 감사점수 78점으로 각각 C+과 C0등급을 받았다. 감사에서 학생회비 사용에 대한 거래내역서 미제출 및 영수증 미비 1건과 신입생회비 및 기타에도 거래내역서 미제출 및 영수증장부 미제출 2건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중앙동아리연합회는 각각 예산집행정지 2주와 예산집행정지 3주 처분을 받았다. 중앙운영위원회 산하기구 중 유일하게 감사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예산 1,200,000원(학생회비 1,200,000원) 중 학생회 사용금액 0원(0%), 감사점수 88점으로 B0등급을 받았다. 영수증 미비 2건 적발로 경고 1회가 부과됐다.

특별자치기구인 도서관자치위원회는 총예산 1,536,305원(학생회비 1,500,000원, 이월금액 36,305원) 중 학생회 사용금액 136,000원(8.85%), 감사점수 100점으로 A+등급을 받았다. JJ축구리그위원회는 총예산 3,487,781원(신입생회비 및 기타 2,600,000원, 이월금액 887,781원) 중 학생회 사용금액 724,120원(20.76%), 감사점수 40점으로 D0 등급을 받았다. 영수증 미비 5건과 학생회 사용금액 기준 초과(15%)로 예산집행정지 5주 처분을 받았다. 총학생회, 중앙동아리연합회 등 5개 중앙 학생자치기구는 평균 학생회 사용금액이 860,120원(4.94%)였고, 평균 감사점수는 82점으로 기록됐다.

단과대학 학생회 중 처분받지 않은 단위는 사회과학대학과 공과대학, 문화융합대학, 사범대학, 총 4개 단위였다. 학생회 사용금액 비율이 가장 높았던 단위는 인문대학이었다. SIGNAL 인문대학 학생회는 총예산 7,040,378원(학생회비 2,353,648원, 학회비 2,640,000원, 신입생회비 및 기타 2,040,200원, 학회비 이월금액 6,530원) 중 학생회 사용금액이 941,700원(학생회비 361,600원(11.93%), 학회비 580,100원(21.92%))이었다. 감사점수는 학생회비 80점, 학회비 87점, 신입생회비 및 기타 87점으로 각각 C+(예산집행정지 2주), D0(예산집행정지 5주), B0(경고 1회)등급과 처분을 받았다. 감점 사유는 학생회비 사용금액 기준(15%) 초과와 영수증 미비 다수, 직인 누락, 영수증장부 미비였다.

감사 우수자치기구는 도서관자치위원회(우수 기타자치기구 부문)와 ON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우수 단과대학 학생회 부문), 과학교육과(우수학과 부문), 예술심리치료학

과(우수학과 부문)가 선정됐다.

〈학생자치기구 감사시행세칙 제18조(예산총액)〉에 따르면, 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 금액과 당해 학생회비, 학회비, 신입생회비, 등록비, 예금결산이자 중 수입 사항의 총합을 작성하여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과의 총예산이 회비와 이월금액을 합친 것보다 적거나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련해 중감위는 "총예산은 자치기구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월금액과 배당된 학회비, 신입생회비, 이월금액, 등록비를 모두 더해 계산했다"라며 "일부 학과의 경우 계산오류로 이의제기 및 질의응답이 있었다"라며 "추후 재공지할 때 수정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학년도 감사 때 '1학기에 미사용한 학생회비에 대해 처벌하는 등의 기준으로 논란이 됐다. 올해 감사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는가'에 대해 묻자, 중감위는 "올해는 감사 세칙의 이해도를 중요하게 확인했다. 세칙을 얼마나 숙지하고 기준에 맞게 예산을 사용했는지와 그에 따른 증빙 내용은 충분한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라고 기준을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예산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자치기구는 〈학생자치기구 감사시행세칙 제24조(징계내용)〉(4. 예산집행정지 ① 예산집행정지에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일자부터 적용이 시작된다)에 따라 9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중감위는 중간감사를 진행하며 느끼고 보았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취합된 내용은 정기감사 전 감사 설명회를 개최해 답변한다. 관련 내용은 중앙감사위원회 인스타그램(@jj_cac_202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대신문의 인터넷 기사(www.news.jj.ac.kr)를 참조해 주세요.

|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천하제일 학과자랑 동영상 공모전 결과 발표

지난 16일, '천하제일 학과자랑 동영상 공모전'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학교 학과를 주제로 한 학과 소개를 주제로, 우리 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다.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된 동영상 기획서 심사를 통해 최종 통과한 15개의 팀에게는 영상 제작비(50만 원)가 지급되었다.

시상은 '일반 영상'과 '숏츠 영상', 두 부문으로 분류하여, 대상 한 팀, 최우수상 한 팀, 우수상 네 팀, 장려상 세 팀, 총 9개의 팀이 선정되었다. 심사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사전 업로드 및 호응도 조사'를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 진행했으며 각 영상의 조회수, 좋아요, 댓글 등을 심사에 반영하였다. 호응도 조사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하여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했다.

'천하제일 학과자랑 동영상 공모전'의 대상은 영화방송학과

과 Running 팀의 '인생은 영화처럼 ready action' 작품이 수상하였으며, 최우수상 또한 영화방송학과 영방학습개발센터 팀의 '영화가 하고 싶다고? ...거 어떻게 하는 건데' 작품이 수상하였다.

대상을 받은 Running 팀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 나간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전해주고자 한다"라는 뜻이 팀명에 담겨 있으며, "영화방송학과만의 특징인 팀 활동을 통해 개인의 역량이 모여 협동심을 발휘할 때 진가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리고, 영상 제작 과정에서 겪는 고난을 유머로 풀어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며 자연스럽게 영화방송학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영상의 주제를 설명했다.

Running 팀의 연출을 맡은 김유빈(영화방송학과 2) 학생은 "초반에는 영화방송학과에 속해있기 때문에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하지만 팀원

들 모두 즐기면서 하지는 마음이 컸고, 덕분에 좋은 결과까지 얻어 기쁘다"라고 수상소감을 남겼다.

한편, 우수상은 일반 영상에 건축학과 건축팀, 시각디자인학과 Ctrl+팀, 숏츠 영상에 시각디자인학과 디뮤팀, 한식조리학과 한식조리학과 홍보단팀이 수상하였으며, 장려상에는 중등특수교육과 원정명호팀, 외식산업학과 외식산업학과 홍보단팀, 기계자동차공학과 기자타스팀이 수상했다.

| 강수아 기자(xv0915@jj.ac.kr)

전주대, 물놀이장 운영

우리 대학은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ESG 경영의 하나로 캠퍼스 내 창조관 일대에서 무상으로 개방해 '전주 여름철 물놀이장'을 운영했다.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장'은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그동안 운영되지 못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아 3년 만에 재개되었다. '전주 여름철 물놀이장'은 전주 월드컵 광장(덕진권역)과 우리 대학 내 창조관(완산권역) 두 곳에서 동시에 운영되었다. 월드컵 광장은 700명, 우리 대학 내 창조관은 3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안전에 신경 썼다.

우리 대학은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캠퍼스를 무상으로 개방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이다. 이번 무상 개방 결정은 사회(Social) 부분의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생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함께 즐겁게 지낼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우리 대학과 전주시가 협업하여 성사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여름철 즐거운 활동을 제공함과 동시에 타 대학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등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았다.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전주대, 9일간의 국토대장정 완주

우리대학 학생들이 지난 7월 11일부터 8박 9일간 제주도 일대에서 국토대장정을 진행했다.

이번 국토대장정은 제주항 도착 후 반시계 방향으로 해안 도로와 올레길을 따라 서귀포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의 거리를 걸었다. 이 기간 동안 해류를 따라 밀려 들어오는 해양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과 제주 4·3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까지 다양한 활동이 포함돼 있었다. 학생들은 국토대장정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플라스틱 재활용 등 환경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러한 활동에 공감한 현대자동차와 굿네이버스 등도 함께 뜻을 같이하고 ESG활동을 지원해 줬다.

특히 학생들과 함께 걷고, 사계 해변 ESG 활동에도 참여한 임정엽 전주대학교 총동문회장은 "우리 전주대학교 학생

들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이 제주도에 온전히 전해졌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국토대장정을 계기로 아름다운 바다와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해 지속해 관심을 두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되기를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진배 총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응원을 위해 1박 2일의 일정으로 함께 하였으며, 현지에서 지도했던 이상행 학생취업처장은 "우리 학생들이 아름답게만 보였을 제주의 '아름'을 직접 걷고,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겠다고 생각한다."라며 "함께 격려하고, 나누고, 배려할 줄 아는 진정한 수퍼스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출처: 전주대학교 학생지원실
|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jnbs 2023 학사단위 구조개편

- 단과대학: 인문대학이 인문콘텐츠대학으로 명칭 변경
- '문화융합대학' 소속이었던 스마트미디어학과, 인공지능학과 '공과대학' 소속이었던 컴퓨터공학과 위 학과들의 단과대학 소속이 '소프트웨어융합대학'으로 통합
- 핵심교양 학문융합 영역 추가
 - 변경 전: 인간과 삶, 사회와 경제, 과학과 생명, 문화와 예술
 - 변경 후: 인간과 삶, 사회와 경제, 과학과 생명, 문화와 예술, 학문융합 (학문융합은 단과대학 제한 없음)

2023-2학기 신문방송국 사령

■대학신문사 임명

[편집장] 송민호(한국어문 18)

[선임기자] 박현빈(경영 18)

[취재부장] 최혜림(한국어문 20)

[정기자] 송단비(영화방송 21)
김예은(시각디자인 22)

[일반기자] 하늘(한국어문 23)
오유진(행정 21)
전지은(한국어문 23)

위 사람을 8월 30일부로 상기직에 임명함.

잼버리가 남긴 교훈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다. 본 행사는 3년 주기로 열리며,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회원국 대표들 간의 투표를 통해 개최지를 선정한다. 총회에서 선정된 개최지를 기반으로 행사 진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4년 주기로 열리고 있는 행사는 전 세계 회원국 5만여 명 이상의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인종, 종교, 이념,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문화 교류 및 우애를 쌓아 나가고 있다. 참가 가능 나이는 14세에서 17세로 국한되어 있다. 해당 범주에 드는 청소년은 잼버리 참가에 큰 기대심을 품고 있다. 인생 일대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장소는 전북 부안군 새만금이었다. 하지만, 개최 지역인 전북도와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소홀

히 하였던 행사 준비 과정이 본 행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주최 측 내부에서 수년 전부터 위협요인으로 경고한 폭염을 간과하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기사 '적신호를 무시하고 한국이 스카우트 잼버리를 어쨌든 강행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2016년부터 예측되었던 극한 기상에 대한 필요성을 내부에서 제기하였다. 또한 2016~2018년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보고서 3건에는 폭염과 같은 성공적 개최를 방해하는 최대 위협들을 경고하였다. 특히 2018년 보고서에는 "8월 행사가 36도 폭염과 태풍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문이 있기도 하였다. 또한 보고서 내용 중 하나였던 행사장 숲 조성 계획은 흔적을 감추었다. 새만금에는 숲은 물론 이와 비슷한 녹지공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부족한 폭염 대비와 의료 지원은 온열병 환자가

속출되는 원인이 되었다. 급기야 영국스카우트 연맹은 철수를 결정하였다.

설상가상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이 전망되자 세계스카우트 연맹에서는 7일 오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조기 철수 계획을 발표했다. 8일 오전부터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야영장을 떠나 서울 등의 수도권으로 떠났다.

| 하늘 기자(neul0603@jj.ac.kr)

폭염대비 건강수칙!



| 김예은 기자(ekfzmsdl@jj.ac.kr)

'미래 세대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오는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한옥마을 일대 등 전북 14개 시와 군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 신종 플루 사태로 인해 취소되었던 것을 제하면 올해로 22회째를 맞는다.

전주세계소리축제 관계자는 전라북도에서 축제를 여는 이유로 전주가 가진 판소리의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꼽았으며, 이러한 유산을 과거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가치로서 전해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 키워드는 '상생'과 '회복'이다. 인류가 마주한 어려움을 음악으로 극복하고 전통 음악이 다양한 장르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개막공연은 동서양 음악의 장점을 모두 수용한 전통 음악으로 막을 올린다. 올해 준비된 프로그램은 총 89개이다. 행사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면 축제를 여는 만큼 아시아, 북

미 등 13개국의 문화가 담긴 공연이 준비되었다고 밝혔다.

전북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 전주시립교향악단, 가야금 연주자 문양숙, 소리꾼 고영열과 김윤희, 바리톤 김기훈, 소프라노 서선영 등 정상급 음악가들의 협연으로 진행된다. 또 이진용, 최우정, 김성국, 안효영 등 국내 정상급 작곡가들의 작품이 개작과 편곡, 초연의 형태로 연주된다.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최대 야심작은 평균연령 81.2세의 다섯 명창이 나서고 총 공연 시간만 20시간에 달하는 '국창열전 완창 판소리'이다.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다섯 명의 명창이 제자들과 함께 판소리 다섯 바탕을 완창한다.

한편, 표는 인터파크와 나무컬처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전예매는 7월 14일부터 시작되어 9월 23일에 종료된다. 주요 공연은 현장에 오지 못한 국내외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철거된 야구장의 새로운 변신

전주시가 철거공사 후 방치될 수 있는 야구장과 그 일대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 지난 1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은 시청 브리핑장에서 올해 하반기 전주종합경기장 및 야구장에서 열릴 문화행사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023 전주얼티티뮤직페스티벌(JUMF)'이 진행되었다. JUMF에서는 K-POP과 ROCK, 어쿠스틱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였으며, 페스티벌을 찾은 관객들에게 색다르고 특별한 무대를 제공했다.

이어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주의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주가맥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가맥축제는 전체 방문객 중 외지인이 35%를 차지할 만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로써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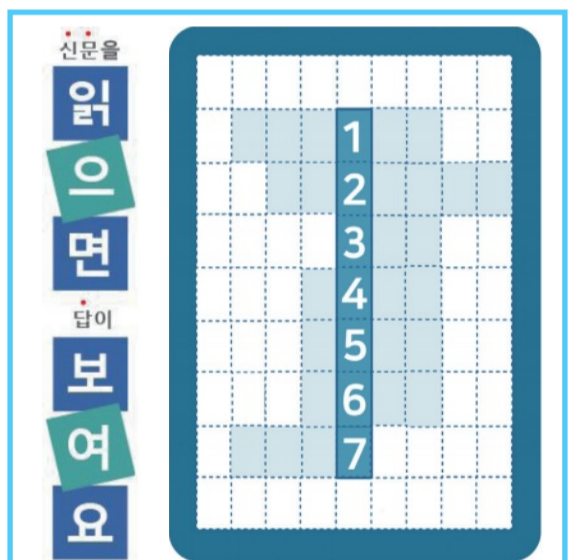
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는 9월에도 행사는 계속된다.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이 전주종합경기장 및 야구장에서 열린다. '전주평생학습한마당'에서는 130여 개의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가 참가해 다양한 홍보 부스 및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은 배움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채우고, 학습을 통해 배운 실력을 서로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10월에는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의 주요 거점 공간에서 '동아시아문화예술 페스티벌', '전주문화재야행', '전주독서대전' 등 전주의 특색있는 축제들이 한 달간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같은 달 14일에는 '제30회 전주시민체육대회'가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황관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이 문화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행사가 전주시민과 관광객에게 다가갈 예정"이라며 "문화도시 전주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문화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1. 감사 규모는 총액 373,000,000원이다.
2.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전주○○○○○○○'이 전주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부지에서 열린다.
3. ESG는 ○○○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이다.
4. ○○ ○○ 나이는 14세에서 17세로 국한되어 있다.
5. 장려상에는 중등특수교육과 원정명호팀, 외식산업학과 외식산업학과 ○○○○, 기계자동차공학과 기자타스팀이 수상했다.
6.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다섯 명의 명창이 ○○○ 함께 판소리 다섯 바탕을 완창한다.
7. 제주 4·3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 ○○○를 위한 교육까지 다양한 활동이 포함돼 있었다.

※ 931호 정답: 활기찬여름방학

[931호 정답자]
- 회계세무학과 방시현 - 재활학과 서하운
- 경찰학과 김유민

알림

※보다많은 학우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2회 연속당첨은 제한하며,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합니다.
※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9월 13일(수)까지 카톡 플러스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3명을 뽑아음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정답자 발표: 933호(9월 27일) -



2023-1학기 학생자치

지난 5월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되며 일상 회복이 한층 더 다가왔다. 작년과 비교하면 확진자의 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도 교내 각종 행사와 축제를 막을 수는 없었다. 작년에 개최한 대축제를 기점으로 봄축제나 여러 행사의 규모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늦었지만, 코로나 학번도 행사다운 행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학우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학생자치기구의 공약에서도 행사 개최가 주요공약으로 등장했다. 이외에도 다른 대학과 함께하는 연계 공약, 여행비 지원, 농촌봉사활동 등 활동적인 공약이 이어졌다.

이에 본지에서 학생자치기구가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점검을 해보았다. 대상은 총학생회와 중앙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다. 공약 이행 확인은 학생자치기구 SNS를 확인해 점검했으며, 협조를 구해 학생자치기구가 직접 공약 이행률을 체크하는 등 일부 도움을 받았다. 7월 31일 기준으로 공약 이행 확인이 어렵거나, 2학기에 진행될 공약은 미이행으로 체크했다.

SIGNAL 총학생회

SIGNAL 총학생회는 주요공약 5개와 세부공약 10개를 약속했다. 주요공약 중 소통의 SIGNAL(소통부스 설치, 교내 문제점 등 해결)과 변화의 SIGNAL(학생회 회의 참여, 학생회 회의록 공개), 도움의 SIGNAL(시험 기간 각종 지원과 강의실, 총학생회실 개방 등)이 이행됐다. 합성의 SIGNAL(전북권 대학과 축구 교류전 진행)과 너의 SIGNAL(공모전 기획 참여)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세부공약은 기숙사 조식 배달과 생필품 공동구매, 불법 카메라 방지 공약이 이행됐다. 교내 헬스장 활성화 공약은 부분 이행 중이며, 교내 시설물 개선 공약(교내 시설, 휴연장, 노천극장, 버스 정류장 등)은 방학 중 이행될 예정이다. 기숙사 내 공용공간 및 물품 모니터링과 통금 시간 연장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통금 시간 연장 공약은 지난 몇 년 동안 기숙사 운영팀과 운영위원회, 학생회의 대화가 이어졌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YUEIL 중앙동아리연합회

YUEIL 중앙동아리연합회는 주요공약 5개와 세부공약 16개를 약속했다. 주요공약 중 다시 돌아온 전전제!! (전북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와 연합축제 및 e스포츠대회)와 응당하라 2019(동아리 홍보박람회 개선 및 축제형식으로 개편)가 이행됐다. 슬기로운 동아리생활(신입생 동반 연합동아리 LT), 동아리 플레이 리스트(동아리 홍보 영상 제작), 학칙 개정 TF팀 운영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세부공약은 시험 기간 이벤트와 개강 및 성년의 날 이벤트 공약이 이행됐다. 그 외 14개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최근 중앙동아리연합회를 향한 각종 문제 제기와 더불어 낮은 공약 이행률이 다음 학기 학생회 활동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2학기에 공약 이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SIGNAL 인문대학 학생회

SIGNAL 인문대학 학생회는 주요공약 5개와 세부공약 10개를 약속했다. 주요공약 중 대신 우먼(통학 도움 및 택배 대리 수령), 인문카페(단과대학 카페 운영), GIVE IN 인문(단과대학 종교장터 진행), 인문대 TRAVEL(여

행비 지원) 공약이 이행됐다. 인문대학 MVP 제도(단과대학 포인트 제도) 공약은 부분 이행됐다. 세부공약은 봄 체육대회 개최와 농촌봉사활동 공약이 이행됐다. 복지 물품 확장은 부분 이행 중이며, 나머지 6개 세부공약은 방학 중 이행될 예정이다.

On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On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주요공약 5개와 세부공약 10개를 약속했다. 주요공약 중 농촌봉사활동 진행은 이행됐다. 간담회 개편과 전자레인지 및 과자 자판기 설치 부분은 이행 중이며, 제4회 평화인의 밤 개최와 On 장학금은 방학 중 이행될 예정이다. 세부공약은 복지 물품 확대와 피스포인트 개편, 행사 아이디어 공모, 간식 이벤트 개편, 시험 기간 강의실 일부 24시간 개방은 이행됐다. 나머지 5개 공약은 방학 중 이행될 예정이다.

SIGNAL 경영대학 학생회

SIGNAL 경영대학 학생회는 주요공약 5개와 세부공약 12개를 약속했다. 주요공약은 경영대 문화의날 개최가 이행됐다. 나머지 4개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세부공약은 사물함 대여 서비스와 무료 프린트 사업, 학기별 교내 시설 안전 관리 진행, 경영대 체육대회, 시험 기간 이벤트 공약이 이행됐다. 나머지 7개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고백 의과학대학 학생회

고백 경영대학 학생회는 주요공약 5개와 세부공약 10개를 약속했다. 주요공약은 농촌봉사활동 진행과 23시 천장공부방, 무료 복사소가 이행됐다. 나머지 2개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세부공약은 시험 기간 및 기념일 이벤트 진행과 학생회 SNS 계정 활성화, 예산 내역 투명화가 이행됐다. 복지 물품 확대는 부분 진행됐으며, 나머지 6개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TO:DAY 공과대학 학생회

TO:DAY 경영대학 학생회는 주요공약 5개와 세부공약 11개를 약속했다. 주요공약은 체육대회 개최와 축제 개최, 학생회 주관 단체 봉사 활동이 이행됐다. 나머지 2개 공약은 방학 중 이행될 예정이다. 세부공약에서는 복지 물품 개편과 사물함 대여, 익명 소통 창구 개설, 해동 운영시간 연장이 이행됐다. 무료 프린트 사업과 시험 기간 이벤트는 부분 이행됐으며, 나머지 5개 공약은 방학 중 이행될 예정이다.

PAGE 문화융합대학 학생회

PAGE 문화융합대학 학생회는 주요공약 5개와 세부공약 10개를 약속했다. 주요공약은 부서 신설과 청춘 페스티벌, 문용 - Log, 소통의 PAGE가 이행됐다. 문용 RE:PAGE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세부공약은 복지 서비스 확대와 온라인 월간지 발행, 온/오프라인 이벤트 확대, 장학금 포인트 제도, 예술관 로비 TV 활용 확대가 이행됐다. 나머지 5개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SIGNAL 문화관광대학 학생회

SIGNAL 문화관광대학 학생회는 주요공약 5개와 세부공약 10개를 약속했다. 주요공약은 봄, 사랑, 개강하고: 봄 피크닉과 새콤하게 “문” 달콤하게 “광”: 문광 PX 오픈, 자격증 응시료 지원: SHOW ME THE 자격증은 이행됐다. 나머지 2개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세부공약은 월간 공약 이행률 공개와 헌책 마켓, 24시 불편, 불만 접수, 문화관광대학 체육대회, 월간 뉴스 공지가 이행됐다. 복지 물품 추가는 부분 이행 중이며, 나머지 4개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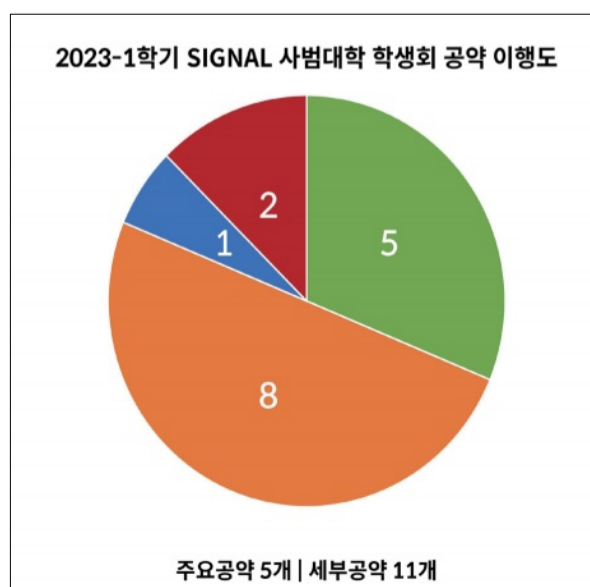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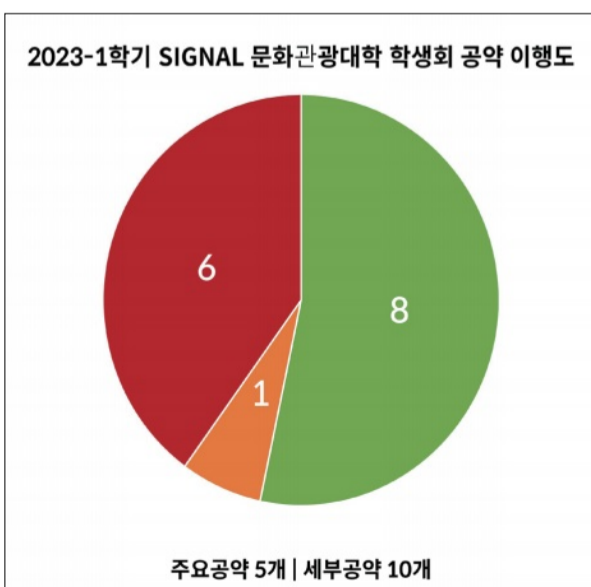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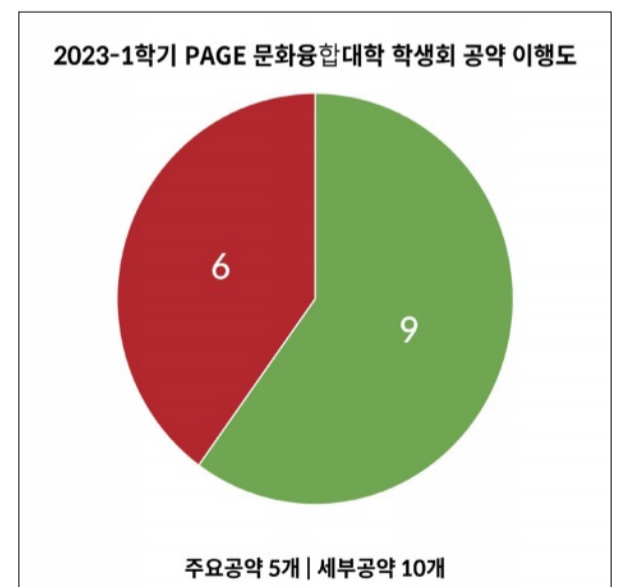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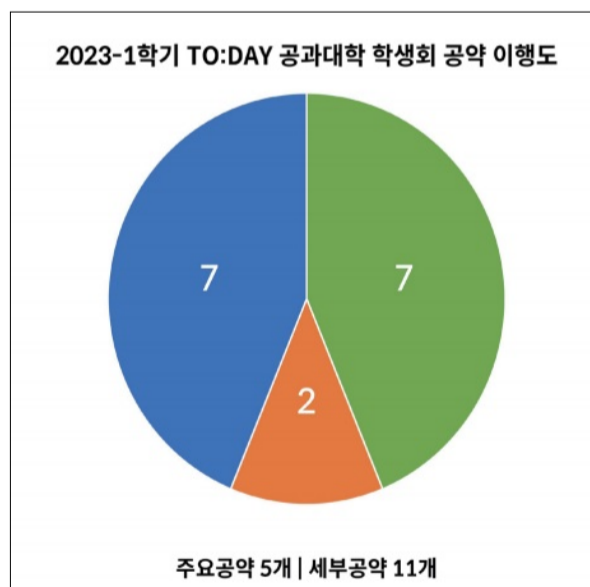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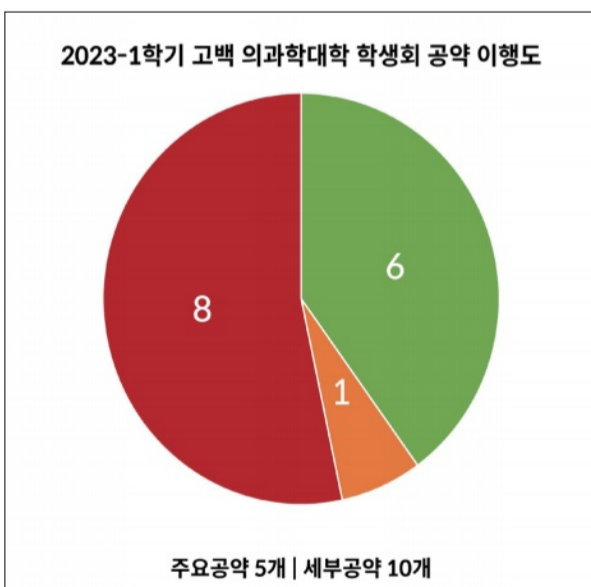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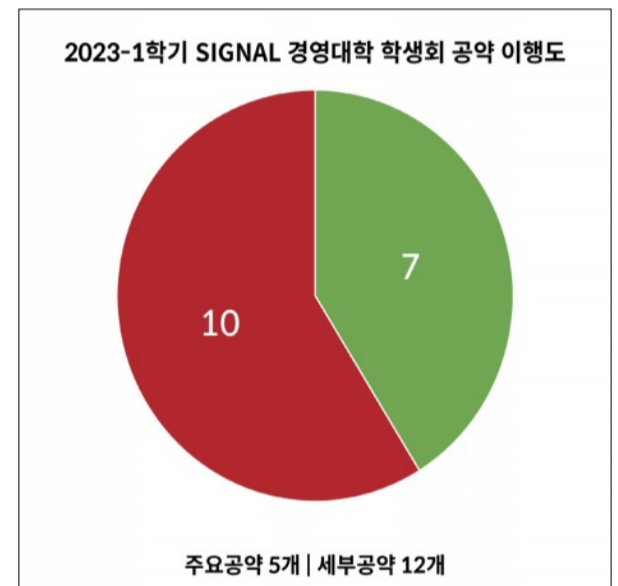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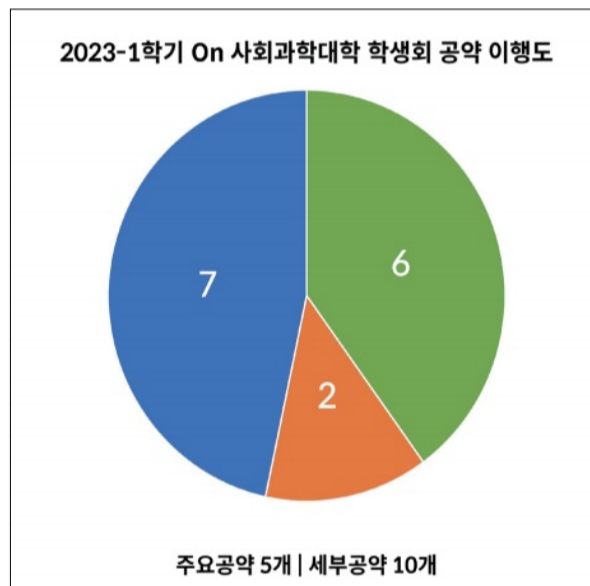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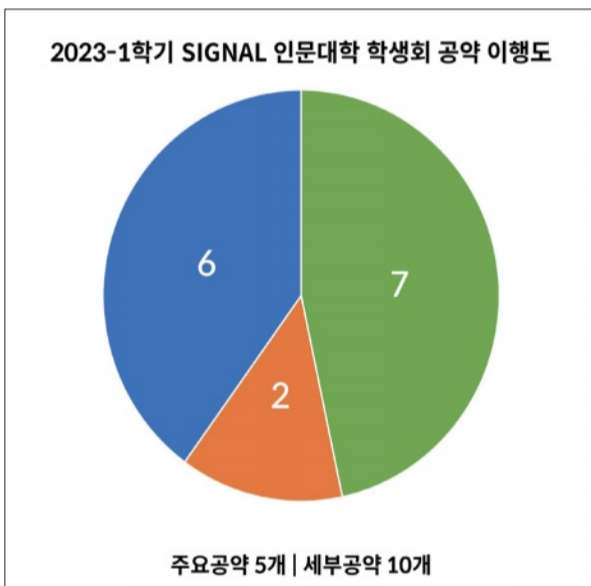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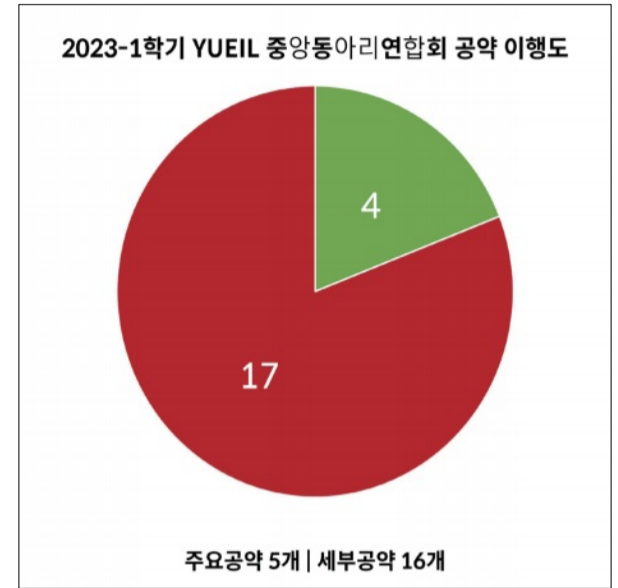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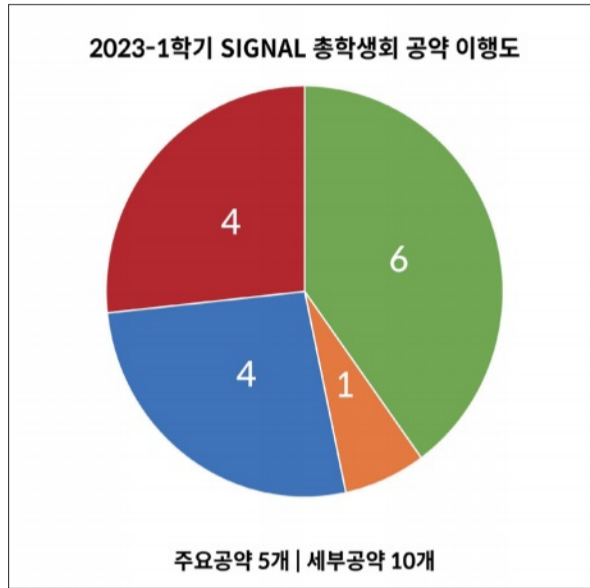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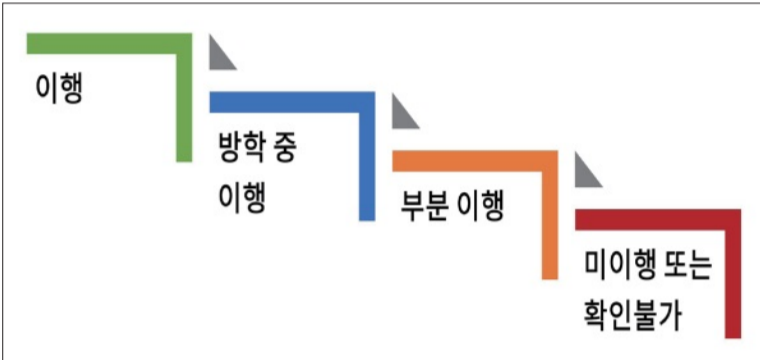
SIGNAL 사범대학 학생회

SIGNAL 사범대학 학생회는 주요공약 5개와 세부공약 11개를 약속했다. 주요공약은 무엇이든 물어보살(트랙 및 교직, 복수 전공 관련 정보 제공)이 이행됐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분기별 간담회 개최)와 진리의 요술램프(중고 책방 운영), 식사는 잡셨어?(우유 급식 진행)는 부분 이행 중이며, LICENSE DREAM(자격증 공부를 위한 공간 마련)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세부공약은 간식 이벤트 선호조사와 화장실 방향제 설치, 복지 물품 확장, 미끄럼 방지판 구비가 이행됐다. 생리대 자판기 보수와 UCC 경연대회, 수업실연 대회 강화, 회의록 공개는 부분 진행됐으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개설은 방학 중 이행될 예정이다. E-sport 리그제 개설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2학기까지 활동해야 하는 학생회들은 이번 학기에 이행한 공약을 되돌아보며 다음 학기를 위해 점검해야 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전체 단과대학 학생회 공약 이행률은 평균 37.8%로 집계되었다. 높은 이행률은 아니지만, 공약 특성상 다수 단과대학 학생회의 공약이 2학기 전후에 몰려있는 만큼 방학과 2학기에 이행이 예정되었는 38.3%의 공약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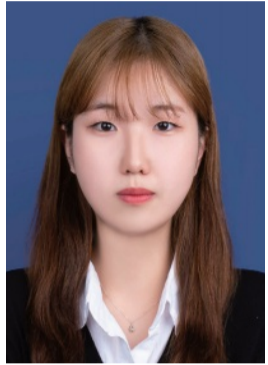
기사 |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디자인 |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기구 공약 이행 점검



* 본 공약 이행도는 본지와 학생자치기구가 함께 체크한 공약 이행도(7월 30일~8월 4일)와 학생자치기구 SNS에 업로드된 공약 관련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SNS에 업로드되지 않은 내용은 부득이하게 확인 불가로 체크했습니다.

사범대, 중국 하북대학 학교현장실습 진행



구다빈
(국어교육과 21)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중국 하북대학교에서 해외학교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경험한 배움의 자리가 아닌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현장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해외에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욱 부풀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해외 체류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보낸 날들을 통해 걱정은 불필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1주 차에는 환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업 실습이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멘티가 되어 중국어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멘토가 되어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오전에 진행된 중국어 수업은 어려웠던 활동 중 하나로 기억된다. 하지만, 기초부터 회화까지 체계적인 수업 구성을 준비해 준 중국 학생들 덕분에 흥미를 잃지 않고 2주간의 수업을 원활히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실습 기간이 끝날 때쯤엔 번역기 없이 기본적인 표현을 주고받을 정도의 중국어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어 수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대상의 교육임을 고려하여 발음과 학습 방식을 조정했다. 평소보다 더욱 발음에 신경 쓰며 정확한 발음을 들려주기 위해 노력했고, 중국어의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한어병음'을 한국어에 적용해 보다 발음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또한, K-pop이나 한국 놀이에 흥미가 있는 중국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업 실습이 종료된 시점에 멘티들에게 한국어로 적힌 편지를 받게 되었다. 서툴지만 정성껏 쓰인 편지를 받았던 그때의 감동과 보람은 아마 오랜 시간 잊지 못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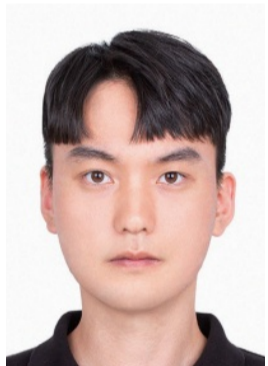
2주 차에는 수업 실습과 더불어 중국 학생들과의 마지막 활동인 한중세미나가 있었다. 한국 학생들은 로컬 푸드, 민속놀이, 명절 등에 대해, 중국 학생들은 4대 발명품, 식문화, 특색 재주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며 동아시아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와 개성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의 출발점은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층 넓힐 수 있었다.

수업 실습 이외에 1, 2주 차 주말과 3주 차에는 문화교류 활동이 진행되었다. 중국 동물원 방문, 전통 의상 한복 입어보기, 백리협 관광, 마작 체험, 차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었다. 활동에 앞서 낯설음으로 인해 잠시 머뭇거리던 때도 있었지만, 중국의 문화를 하나라도 더 경험시켜 주고자 했던 중국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돌아보면 그때의 머뭇거림이 무색할 만큼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어, 좋은 추억을 선물해 준 중국 학생들에게 더 큰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한국인에게 한없이 친절하게 다가와 준 많은 중국인과 학생들로 인해 출발 전 걱정은 실습을 시작함과 동시에 사라졌다. 그들의 호의적인 태도는 중국을 마냥 좋은 방향으로만 바라보지 못했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다. 중국 학생들과의 마지막 만남이 이루어졌던 2주 차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만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움을 알면서도 '마지막'이라는 말은 잠시 넣어둔 채 다음을 기약했다. 언어는 통하지 않더라도, 이별 앞에 흘린 눈물은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고, 우리의 시간이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듯했다. 3주간의 일정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까지도 중국 학생들과의 연락을 이어가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있다.

힘들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경험이 기다리고 있던 '해외학교현장실습'은 후회가 남지 않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만일, 앞으로의 대학 생활 중 이 기회가 곁에 찾아온다면 꼭 놓치지 말고 경험해 보라고 이 글을 읽는 모두에게 전해주고 싶다. 끝으로, 타국에서 온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하북대학교 국제교류원과 교수님들, 학생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황인호
(과학교육과 18)

인간은 누구나 방향의 시기를 겪는다. 누구도 자의로 태어나지 않았기에 어느 순간 자신의 존재와 삶의 목적에 의문을 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만약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은 두려움 속에 있으며 인간은 두려움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렇기에 무엇인가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렇지 않아도 되는 수만 가지 이유가 필히 떠오르기 마련이다. 바로 그럴 때 두려움에 맞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필자는 해외학교현장실습 참가자 14명 중 마지막 신청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 필자 또한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까지 두려움과 싸워야만 했다. 이번 해외학교현장실습 이전에 해외에 가 본 적이 없었기에 첫 해외여행에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사범대학 학생으로서 임용이라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도 필자는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큰 이유는 없었던 것 같다. 사실 그때는 이번 경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중국에 도착하니 정말 새로운 것들로 가득했다. 새로운 언어와 음식, 문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다. 하북대학교에서 만난 중국 학생들과 우리는 총 3주간의 전체 일정 중 약 2주 동안 매일 숙소 근처의 교실에 모여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언어교류를 진행했다. 그리고 각국의 노래를 같이 부르거나,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문화교류도 함께 진행했다. 2주의 시간 동안 간단한 중국어 단어를 배울 수는 있었지만,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데 2주는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 동안 게임을 하며 같이 웃고 즐기기도 하고 영화를 보며 같이 슬퍼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 어느새 우리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소통에 있어서 언어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와 감정의 교류였다. 이것은 비단 타국 사람과의 소통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서로 바보라고 놀려도 그 안에는 애정이 있었다.

마지막 3주 차에 우리는 교실 밖으로 나와 다양한 외부 활동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차 문화를 체험하고, 연못에서 연꽃을 구경하고, 실내 테마파크에서 놀기도 하고, 중국의 전통 놀이인 마작을 체험하기도 했

다.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함께 하니 우리는 정말 친해지게 되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매일매일을 보내다 보니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 이별의 순간이 어느새 눈앞까지 와 있었다.

마지막 날 식사 자리는 정말 즐거웠다. 그러다 해가 지고 음식을 거의 다 먹었을 때쯤 이제는 정말 이별의 순간이 코앞에 왔음이 느껴졌다. 한국 학생들은 식당에서 다시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야 했지만, 우리는 이별의 순간을 앞두고 어찌지도 못 한 채 식당 앞에 둘러서서 이야기를 나누며 이별의 순간을 자꾸만 뒤로 미뤘다. 그러다 정말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 몇몇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는 짧은 포옹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했다. 나는 그저 울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해주지 못했다. 만약 내가 중국어를 정말 유창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문장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어찌면 이런 순간에는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별은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상하지만 이별의 순간은 슬프기보다는 아름답게 느껴졌다.

한국에 돌아오고 조금 시간이 흘렀다. 가끔 중국에서의 일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중국에서 만난 학생들이 보고 싶어졌다. 또 앞으로 만나게 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또한 기다려지게 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조금은 정해진 듯했다. 추억은 뒤로 남았지만, 희망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고, 또 언젠가는 안식처가 되어 줄 것이다. 이번 해외학교현장실습을 통해 하나 배운 점이 있다면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는 자기 자신을 위한 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때 발휘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굳이 두려움에 맞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현장실습 기간 동안 만난 모든 이들에게 감사로,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의 도전에 응원을 보낸다.

하계 한국어교육 비대면 실습 진행



인문대 한국어문화과는 매년 하계, 동계로 나누어 해외 한국어교육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교육 실습 현장의 경험을 해외로 확대하고 향후 국내외 한국어 교육센터에서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2023년 하계에는 중국 연변대학교 학생들과 4주간 비대면 실습을 진행하였다. 2023 하계 실습에 참여한 송유정 학우, 정주안 학우, 진주현 학우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 진주현 학우가 연변대 학생들과 함께 찍은 비대면 실습 시간

정주안
(한국어문학과 18)

처음에는 걱정과 설렘으로 시작된 수업이 만남이 지속될수록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외국인 학생과 실시간으로 소통했기에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이 질문에 답해줬고, 또 많은 질문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학생과 같이 이뤄나간다는 것을 느꼈고, 이때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명의 학생 이름을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학생들의 목소리까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시간 분량의 수업이지만 서로 질문과 대답을 하다 보니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서로 관심 있는 노래나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낸 적이 대다수였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더 아쉬워하는 학생들이었기에 재밌는 수업과 영상을 찾고자 했고,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어떤 영상을 보고 싶고 어떤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해주어 원활한 수업 진행이 되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며 수업하면 좋겠다는 아쉬움과 함께 좋은 경험으로 실습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송유정
(한국어문학과 19)

한 달간의 한국어교육 실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대면 환경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한국어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었지만 실시간으로 화면 공유를 하며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수업 자료를 만들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찾아내며 제 자신도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 방식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게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면서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문화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 공유하며 더 나아가 한국어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교육 실습을 통해 국어를 가르침으로써 얻은 소중한 경험은 저에게 큰 자신감과 성장을 안겨주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진주현
(한국어문학과 20)

저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간 중국에 있는 '연변대학교'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해외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9명의 학생과 한 반을 이루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말하기 중심 수업이었고, '세종 한국어'라는 교재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해외 실습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경험이 되었습니다. 실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해외 실습을 하면서 실제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 제가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알 수 있었고, 어떻게 수업을 구성하면 외국인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지를 아주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실습을 하면서 저는 비슷하지만 다른 어휘를 설명할 때 그 차이를 설명해주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전화'와 '통화'는 비슷한 어휘지만, 뉘앙스나 쓰임새가 조금 다른 어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때에 '전화'라고 쓰고, 어느 때에 '통화'라고 쓰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차이가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어휘를 설명할 때 초급 학습자의 경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쉬운 어휘나 문법만 알고 있어서 초급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야 하는 것도 저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더욱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학생이라 초급 학습자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가능하기도 어려워서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어휘를 알까?', '이 예문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듣기 자료를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이외의 시청각 자료를 준비할 때 학습자가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노래를 위주로 준비하여 흥미를 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실습이라 인터넷 연결 문제로 인해 학습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학습자들의 정확한 발음이나 반응을 확인하지 못한 거 같아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학습자들도 마지막 수업에서 아쉬워하는 것이 너무 느껴져 만약 직접 만났다면 얼마나 더 재밌고, 귀여운 친구들이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짧은 실습 기간을 보내면서 저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느껴지고, 학습자들이 어휘나 문법을 알고, 이를 스스로 적용하는 것을 보니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해외 실습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면 꼭! 학습자를 대면하여 가르치고 그 뿌듯함을 다시 느끼고 싶을 정도로 아쉽고도 재밌는 경험이자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난 8월 10일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했다. 6호 태풍 카눈은 7월 28일 괌 서쪽 730km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해 한반도 쪽으로 이동했고, 8월 2일 일본 오키나와현에 가깝게 접근한 후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풍 카눈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유·초·중·고교 1,579개교에서 8월 10일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있는 남해안 지역(목포, 여수 엑스포, 광주 송정, 진주, 마산, 포항, 구포 경유 등) 노선, 태백선·경북선 연쇄 지연 예방을 위한 일부 KTX(일반철도 구간 경유 포함) 및 동해선(부전~태화강) 광역 전철 등의 운행을 중단하는 조치를 보여줬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카눈이 우리나라에 머문 16시간 동안 1만 5천 명 이상이 주택 침수 등으로 대피했고 379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남부지역에서는 전날부터 300mm 안팎의 비가 내림으로써 침수, 낙석, 고립 등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실종 및 사망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대출 상환 유예가 특별 대출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경상북도 자율방재단 연합회원 30여 명이 군위군의 피해 지역을 찾아가 복구에 힘을 보탤고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는 큰 피해를 본 수해 지역에 수해복구를 위한 구조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은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임직원들이 성금 약 700만 원을 모아 기부했다. 이처럼 도움의 손길은 다양한 곳과 갖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태풍 '카눈'은 어떻게 이런 피해를 불러일으킨 걸까?

1. 태풍이란?

태풍은 중심 부근 최대풍속이 17m/sec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성저기압을 이른다. 적도 근처 해수면 온도가 27°C 이상인 해양에서 따뜻해진 물이 증발하여 태풍의 에너지를 형성하는데, 이는 적도 부근이 극지방보다 태양열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열적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생기는 자연 현상이다. 적도 인근 해상의 공기는 고온다습하고 불안정하다. 이에 따라 기압이 주변보다 약한 곳이 생기면 인근의 공기가 몰려들어 상승하면서 자그마한 소용돌이를 이루며 적란운을 만든다.

때에 따라 적란운이 비를 뿌리는 스크(풍속의 증가가 매 초 8m이고, 풍속이 매 초 11m 이상에 달하며 적어도 1분 이상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이 발생한다. 이런 소용돌이가 북동무역풍의 영향으로 한곳에 모여 세력이 커지면 태풍의 씨앗이 된다.

이런 태풍은 발생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북서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것은 태풍(Typhoon)이라고 부른다. 또 북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하는 것은 허리케인(Hurricane)이며, 인도양, 아라비아해, 벥골만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이클론(Cyclone), 마지막으로 호주 부근 남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것은 윌리윌리(Willy-Willy)라고 한다.

태풍을 위력을 비하자면, 하나의 태풍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1%로 1년 동안 미국에서 사용되는 전력, 연료 그리고 난방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

2. 태풍 카눈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바, 1884년부터 2023년까지 남해안에 상륙해 충청권을 통과한 태풍은 15개뿐이다. 140년간 한국에 영향을 준 태풍은 대략 연간 3.4개다. 이와 비교하면 현재까지 충청권을 통과한 태풍의 수가 적다는 걸 알 수 있다. 충청권을 통과한 태풍의 수가 적은 이유는 제트기류와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을 막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카눈이 충청권을 통과한 이유로 태풍의 경로에 영향을 주는 제트기류와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이례적인 이동 경로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태풍 카눈의 특징으로는 느린 이동 속도가 있다. 카눈은 8월 9일 기준으로 시속 약 12km의 속도로 북상했다. 이는 일반적인 태풍의 평균 속도인 26km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이동 속도를 제어하는 지형류에 변화가 생기면서 속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태풍이 느려지면 비구름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많은 비를 뿌리게 된다. 그 때문에 침수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진 것이다. 특히 강원 영동과 영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카눈이 한국에 직접 영향을 주기 시작한 8월 9일부터 이날 오후 10시까지 강원 속초에 402.8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평년보다 높은 바닷물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태풍의 영양분이 되는 수증기의 양도

증가하여 태풍 카눈에 힘을 실었다. 일반적인 태풍 수명이 5일이다. 이에 비해 카눈은 약 15일을 열대성저기압이 아닌 태풍으로 유지했다.

3. 태풍에 대한 준비, 발생 이전부터 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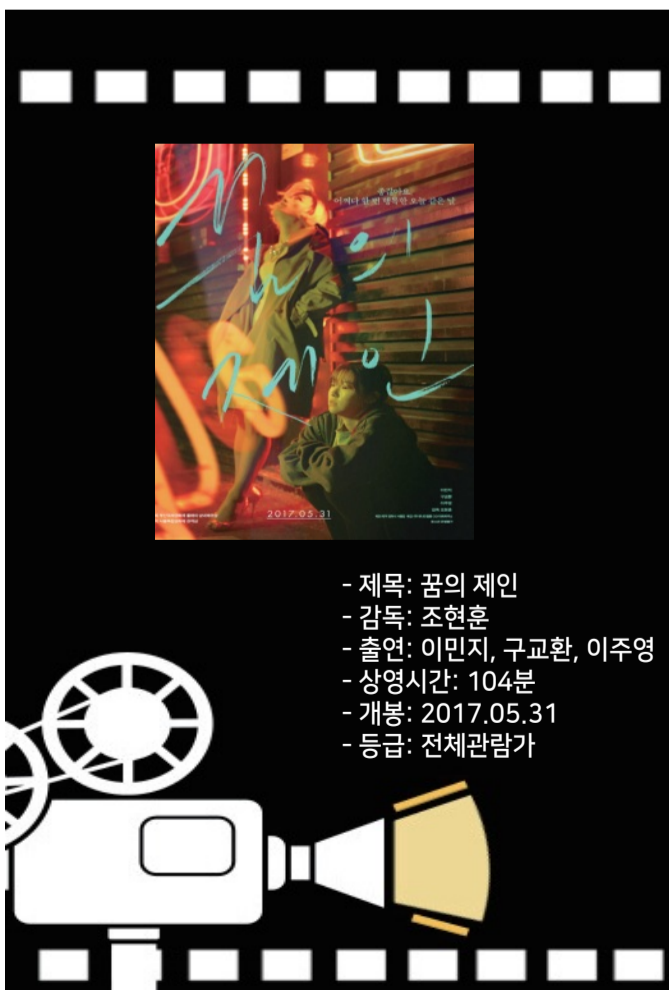
해안선이나 인근 섬, 이동주택, 하천 근처나 홍수터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 대피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놓으면 배수에 용이하다.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지하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해 침수를 예방하고 응급 용품,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를 준비한다. 또, 상수 공급 중단을 대비해 물을 받아놓는다.

태풍 특보 중에는 안전을 위해 외출은 자제하고 정보를 청취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한다. 건물, 집안 등 실내에서의 안전 수칙을 미리 알아두고 가족과 함께 확인한다.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않고, 안전한 지역으로 사람들과 함께 대피한다. 또, 태풍이 지나가면 가족과 지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인근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부가 있는지 조사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유엔 2000~2019 세계 재해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 실패로 기후변화가 발생해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도 증가할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가지고 재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스프]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 무엇이 달랐을까?, 대단한 지구 여행(윤경철), 시사상식사전(pmg지식엔진연구소), 자연재해의이해(이재수),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사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디자인 | 조희주 기자(zlx1020@jj.ac.kr)



“자, 우리 죽지 말고 불행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만나요. 불행한 얼굴로 여기, 뉴월드에서.”

소현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운 가출 청소년이다. 소심한 성격 탓에 같은 가출팸과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런 소현을 유일하게 받아줬던 정호마저도 소현을 버리고 도망간다. 정호를 잊지 못한 소현은 정호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모텔방으로 가서 자살을 시도하며, 누구라도 이런 자신을 찾아주길 바란다. 소현의 염원을 하늘이 들은 듯, 차게 식어가던 소현의 모텔 방문을 누군가 두드린다. 그렇게 소현의 눈앞엔 꿈의 환상처럼 제인이 등장한다. 제인은 트랜스젠더 바 '뉴월드'에서 일하는 트랜스젠더 마담이다. 바에서 같이 일하던 정호를 좋아하고 있던 제인도 갑자기 떠나버린 정호를 찾고 있다. 찾는 이가 같은 소현과 제인은 함께 정호를 찾는다. 제인은 혼자 된 소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제인은 가출 청소년의 엄마 노릇을 하고 있었고, 제인의 가출팸은 그야말로 꿈의 가족이었다. 제인은 자신의 가출팸에게 그 어떤 일도, 학대도 하지 않는 좋은 엄마이자 아늑한 울타리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환상 같은 가출팸에서의 생활은 제인이 정호를 잊지 못해 상사병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끝이 났다.

꿈에서 깬 듯, 소현은 새로운 가출팸에 적응해야만 했다. 소현이 새롭게 들어간 곳은 집을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군림하고 있는 아빠 병욱의 가출팸이었다. 그런 소현의 괴로운 생활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지수가 등장한다. 지수는 여동생과 살기 위해 병욱 몰래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 지수는 자신의 동생과 닮은 소현에게 정을 주고, 소현도 그런 지수에게 정을 주며 둘은 삭막한 가출팸 속 서로의 위로가 된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병욱의 신고식에 저항하던 지수는 병욱에게 미움을 사고, 성 노동을 강요받는다. 지수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창문으로 뛰어내린다.

또다시 혼자 된 소현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는 법을 몰라 그 어디에서 속하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소현의 이야기 궁금하다면, 오늘 이 영화 어때요?

기사 |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디자인 | 조희주 기자(zlx1020@jj.ac.kr)



지난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 계좌가 운영 중이다. 최근 청년도약 계좌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높은 관심도에 비해 청년들이 선뜻 가입하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 청년도약 계좌란?

청년도약 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금융상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당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도입을 약속했다. 청년도약 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중간에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되고 만기는 5년이다. 혜택으로는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어떤 사람이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을까?

□ 가입 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34세, 병역을 이행하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미산입

□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 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를 조정한다.

□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외 사례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구원 변동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소득의 변동은 개인소득과 달리 반영하지 않는다.

□ 연계 지원: 청년 내일 저축 계좌와 같은 복지상품과 청년(재직자)내일 배움 공제와 같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 계좌 순차 가입을 허용한다.

- 조금은 복잡한 청년도약 계좌 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 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가산금리란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이다. 개인소득에 따라 우대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며,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 금리가 부여된다.

또한, 11개의 청년도약 계좌 취급 은행에서 청년도약 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 연합회소비자 포털에 공시했다. 취급 은행별 최종 기본금리 소득 우대 금리, 은행별 우대 금리 및 적금 담보대출 가산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청년도약 계좌 이전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적금 상품인 청년 희망 적금과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 계좌는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 그리고 가구소득 중위소득이 180% 이내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보다 가입 대상 범위가 늘어났다.

납입 금액에서도 청년도약 계좌는 40~70만 원이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50만 원이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기간은 2년이지만 청년도약 계좌는 5년으로, 길다.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완납을 할 수 있는지 꼭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는 중도해지를 택할 수 있다.

중도해지는 임의 중도해지와 특별 중도해지로 나뉜다. 임의 중도해지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특별 중도해지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특별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해외 이주,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다. 또한 이들에게는 재가입이 허용된다.

그렇다면 두 계좌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비과세 혜택이 있다. 일반적으로 적금을 들면 적금 금액을 돌려받을 때 이자소득세가 붙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비과세 적금이라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비슷한 금리의 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한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는 청년도약 계좌의 단점을 보완할 제도인 '청년도약 계좌 마이너스 통장'을 도입한다. 청년도약 계좌 이탈을 막기 위해 매달 내는 금액이 쌓일수록 한도가 늘어나는 한도 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처음부터 일정 한도를 정해두고 매년 조건을 갱신하는 기존의 마이너스 통장과 달리 청년도약 계좌 연계 마이너스 통장은 납부금에 따라 매달 한도가 증액되는 방식이다.

6월 3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청년도약 계좌 사전 점검 회의에서 하나은행이 청년도약 계좌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씬 파일러'(Thin Filer·금융 이력 부족자)를 대상으로 거래실적에 따라 소액 대출을 하는 것처럼 청년도약 계좌 가입자에게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은 '청년도약 계좌'라는 적금 상품과 연계된 마이너스 통장을 내놨다. 청년도약 계좌에 돈을 납입 하는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적금을 꺼지 않고도 자금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적금 담보 대출 외에도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할 수 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다. 7월 가입 기간 마지막 날인 7월 14일 기준으로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계좌 개설은 언제나 할 수 없다. 매달 2주 동안 가입을 받는다. 9월에는 1일부터 15일까지 가입을 받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 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그리고 선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청년도약 계좌를 통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목돈을 마련 계획을 세워보고 실천하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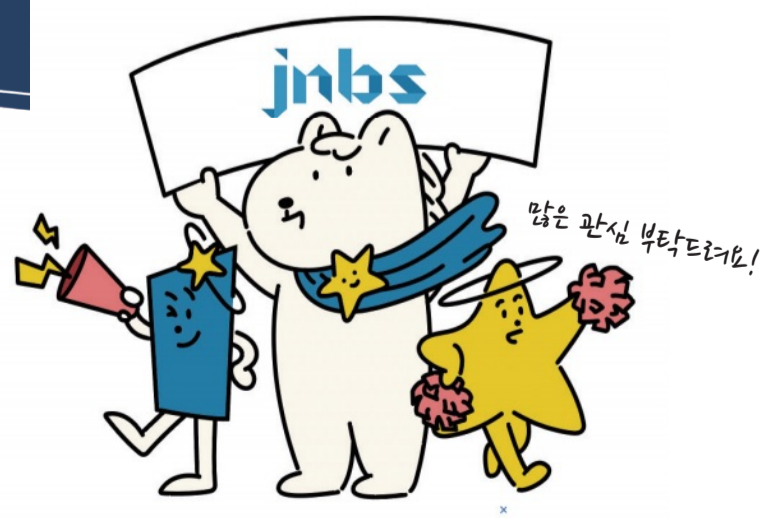
기사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디자인 | 조희주 기자(zlxl020@jj.ac.kr)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청년 희망적금
대상	만 19~34세 청년 (병역 이행기간인 6년 미산입)	
소득요건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 소득 2,600만원 이하)
납입금액	최대 40~70만원	최대 50만원
지원금	소득구간에 따라 다름 (3.0%, 3.7%, 4.6%, 6.0%)	1년차 2%, 2년차 4% 만기시 지급
만기	5년	2년
비과세	○	○

자료: 금융위원회

2023학년도 2학기 전주대신문 발간 일정

호수(No)	발간일
933호	9월 27일(수) 오전 9시
934호	10월 25일(수) 오전 9시
935호	11월 22일(수) 오전 9시
936호	12월 20일(수) 오전 9시



전주대학교 채플 안내



우리 학교에서는 '기독교 정신 구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재학생이 채플을 4회 이수해야 하는 교과과정이 있으며, 이를 위해 5가지 채플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채플 과정을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으나 2023-1학기부터는 전면 대면으로 진행된다. 각 채플에서는 테마와 특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채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장학금 지급,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각 채플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성품채플, 소그룹채플

성품채플, 소그룹채플은 한 학기에 7개의 성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1년에 총 14개의 성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건학이념을 구현한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 새로운 인격과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고, 학생들에게 내면세계의 질서와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 신앙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채플

문화채플은 문화를 도구로, 매주 주제를 정하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그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제시하는 채플이다. 슈퍼스타홀에서 진행되는 문화 채플은 담당 교수의 라이브로 유행가에 기독교적인 가사를 채용한 콘트라팍트의 방식을 이용한 노래를 부르고, 실시간 유튜브 댓글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토크콘서트 형식의 결합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생들 한명 한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에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과 복음이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늘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채플이다.

▶지성채플

지식과 학문의 포괄적인 체계를 교육하고 지성인을 육성하는 대학의 교과과정 체계 속에서 기독교적 학문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우며, 자신의 전공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채플 봉사자들이 함께하여 여러 이벤트와 행사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채플 참여를 유도하고 채플을 흥

미 있게 진행한다. 또한 학기 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채플의 교육 목적을 극대화한다.

▶소명채플

'SQ(Spiritual Quotient)'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돕는 채플이다. 'SQ'란 가치와 의미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창조적 지능을 표현하는 영성지수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새롭게 개발된 측정 도구를 사용해 통합적인 SQ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각자에게 맞는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채플을 듣는 학생들이 본인에게 맞는 적성과 진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전인격적인 온전함을 이루고 학업에 대한 생각과 고민뿐 아니라 진로를 설계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도움을 주는 채플이다.

| 선교지원실 오여찬(ssd5206@jj.ac.kr)

'세상의 빛(The light of the word)', 화가 헌트(Hunt William Holman)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 그림에서 예수님은 등불을 손에 들고 문밖에 서 계신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 주변에 덩굴이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다. 참으로 오랫동안 그 문이 굳게 닫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다. 안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 주님은 이 시간에도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신다. 언제 어디든지 동행하겠다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온 우주만물을 지은 바로 그 분께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이다. 그 분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 나와 동행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현존에서 이루어지는 기쁨, 평강, 자유, 희망, 감사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라난다. 만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뿐이 아니다. 그 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 말씀이 이해되고 꿀처럼 달콤한 성경이 그냥 좋아진다. 그 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다. 기도가 행복해진다. 그러나 내 안에 그 분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모든 것이 그림자로 변한다. 실재가 아닌 허상은 영혼을 채우지 못한다. 그래서 값진 많은 것을 지니고 있어도, 많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대한 과업을 성취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밤새 성경을 암송하며 울부짖어도 그것들은 단지 그 분이 계시지 않는 빈 공간을 채우려는 허망한 몸짓으로 끝난다.

▼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해야 하는 특별한 존재로 나를 지으신 그 분께서 오늘도 '세상의 빛', 등불을 비추시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나와 더불어 먹겠다'고 하신다.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가.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아멘.

장선철 교수 (前상담심리학과 교수)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도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대학교회 206호)

기도문

전주대학교를 위한 기도

전주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2학기의 시작을 앞에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학기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전주대학교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전주대학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전주대학교가 하나님의 복음의 터전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대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곳에 꿈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학생들이 이 곳에서 그들의 꿈을 키워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 세우신 모든 교수들과 교직원들에게 지지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시모집이라는 큰 일이 저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입시환경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주대학교가 하나님의 대학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입학처를 비롯해서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때 지치지 않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학생들을 이 곳 전주대학교로 불러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전주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장순 교수 (신학과경배찬양학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장/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교수)

여호와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시146:7)
방학을 자유로 해석하는 사람은 학기를 속박으로 이해한다. 교수가 교수답게 되고 학생이 학생답게 되는 것을 자유라고 해석하면 개학은 본격적인 자유의 시작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자유의 의미는 달라진다. 시인이 말한 “자유를 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주어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주어와 동사의 이러한 관계성을 존중하면 자유의 의미는 신적인 차원까지 소급되고 확대된다. 그러나 “갇힌 자들”을 주목하면 자유의 의미가 대체로 사람에게 맡겨진다. 인간의 “갇힌” 양태를 주목하고 인간적인 자유의 개념을 따라 이 시구를 이해

하면 투옥된 자의 물리적인 족쇄가 발목에서 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거나 혹은 하나님에 의해 노예가 신분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족쇄의 제도적인 해방을 맞는다는 식으로 해석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내용도 시구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러한 내용을 자유의 주도적인 의미로 혹은 궁극적인 의미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적응계시 은총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적인 연표이며 인문학적 도구로 풀어야 할 텍스트일 뿐이라고 여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당연히 해석은 인간문맥 안에서 설정된 사람들의 통념을 맴도는 수준에 안주하게 된다. “갇힌 자들”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신체적 약자들을 의미하고 “자유”는 약자의 굴레를 벗어나 강자의 대열로 진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주어이신 “여호와”를 존중하면 해석이 달라진다. “갇힌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갇힌 사람들을 가리킨다. 즉 죄에 의지와 지성과 감정이 사로잡혀 그 사실을 느끼지도 못하는 자들, 일평생 죽음에의 종노릇을 끊어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에 감격하지 못하고 마귀의 속입수에 흥분하고 길들여진 자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결박된 자들, 그리하여 여전히 세상의 관능적인 풍조를 흠모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자를 추종하고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진노의 자녀들 등이겠다. 하나님은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서 자

유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시인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될 것이라고 말한 이후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다.
아무리 유력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맥락에서 “여호와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이로 보건대 여기서의 자유는 인간문맥 안에서의 자유를 뜻하기도 하겠지만 보다 궁극적인 의미는 영적인 자유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인의 언급에서 시공간적 자유만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인 자유를 더 갈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믿음의 선배들은 육체의 갇힘 중에서도 이 영적인 자유를 갈구했고 누렸으며 그리하여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시다.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습성과 언어와 행동을 사로잡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족쇄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박의 효력을 상실한다. 참으로 하나님은 놀랍고 능하고 위대한 분이시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의 첫 소절을 “찬양”으로 채색했나 보다. 이제 시작되는 학기를 찬양으로 시작하고 학기 내내 자유를 누리는 전주대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나누면 온전해진다는 역설

<쉽게 읽는 성경> ⑥



조재천 교수
(선교신학대학원)

복음서에는 예수가 공적 사역 중 만났던 많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중 가장 인상적인 사람 중 하나가 길에서 예수에게 나아가 ‘영생을 얻을’ 방법을 알려 달라고 했던 ‘관원’(눅 18:18) 혹은 ‘청년’(마 19:20)이다. 그에게 예수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과 나누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답을 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근심해서 떠나갔다.
이 관원 혹은 청년은 우리 모두를 대표한다(‘관원’이면 중년 이상일 것 같고 상당한 부를 가진 사람이라면 ‘청년’보다는 ‘관원’에 더 어울릴 것 같다. 물론,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는 청년 부자도 존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영원한 생명’ 혹은 구원을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가장 근원적이 욕망이기 때문이다. 물론 성서에서 말하는 ‘영생’은 삶의 양, 길이를 표현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충만하고 풍성한 삶의 질, 수준을 일컫는다. 기독교 신앙의 언어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곧 영생이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불타면서도 절대 죽지 않는다면, 그런 삶

을 두고 영생이라 말할 수 없다.
충만하고 풍성한 삶,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삶, 평화롭고 기쁜 삶을 우리도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우리도 알고 싶은 것이다. 예수의 답은 야구 경기에서 최고 실력자 투수가 타자 몸쪽 한 가운데로, 아주 빠르고 회전수가 엄청나게 많아 아주 무겁게 꽂히는 돌직구처럼 그의 허점, 우리의 허점을 찌른다. 먼저 예수는 ‘영생’이라는 말을 ‘온전함’(마태복음) 혹은 ‘하늘의 보물’이라고 표현한다. 의미가 어느 정도 상통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 부자 관원이 ‘온전함’을 획득하려면 한 가지 실천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문한다--“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그런 후 나를 따르라”(마 19:21과 그 병행절).
이 말을 듣자 그 사람은 ‘슬퍼하면서’ 가 버린다. 즉시 돌아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선 침묵이 흘렀을 것이고, 그 동안 그는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혹은 계산)을 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났다 가라앉았을 지도 모른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더듬거리면서라도 ‘말씀 감사했다’던가, ‘다음에 다시 오겠다’와 같은 의례적인 인사 정도를 했는지 알 수 없다. 예수의 이 마지막 요구가 있기 전 이 사람의 태도는 정반대였다. 확신과 자신감에 차 있었고, 구도자의 열정을 지닌 것처럼 보였다.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는 ‘풀이 죽어’(막 10:22) 있다.
그의 행동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인가? 아니면 기대를 저버린 실망스러운 응답인가?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전자라면, 그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두 부류의 다른 사람들이 보여 준 정반대의 응답은 매우 특별한 것일 수밖에 없다. 하나는 베드로를 비롯한 열

두 제자의 반응이었다. 바다에 그물 던지고 있던 어부들에게 예수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불렀다.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마 4:19-20).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참으로 기묘한 일이다. 또 다른 경우는 예수께서 비유 이야기 속에서 소개한 한 조각 일꾼이다. 그는 남의 땅에서 밭갈이 작업을 위해 고용되었다. 밭을 갈다가 값진 보물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밭을 샀다(마 13:44). 참으로 기묘한 일이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재산을 나누어 주고 예수를 따르자니 지금껏 이룩해 놓은 것들이 아깝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니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슬프다. 이견 일종의 딜레마다. 예수는 왜 이런 딜레마로 그를 몰고 간 걸까? 재산을 그대로 누리도록 하면서 거기에 영생을 덤으로 얹어 줄 수 없었을까? 딜레마처럼 보이는 이 상황의 껍질을 한 꺼풀 벗기면 하나의 역설(paradox)이 드러난다. 물리 법칙, 경제 법칙에 따르면, 나누면 줄어든다. 내 것을 나누어 다른 사람을 주어 버리면 주어 버린 그 만큼 나의 구매력이 줄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줄고, 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심을 얻고 사회의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줄어든다. 노후의 삶과 혹시 모를 사고나 질병의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든든한 보장도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함을 느낀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상태가 ‘온전해지는’ 상태라고 한다. ‘하늘에 보물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역설이 진리가 되기 위한 한 가지 전제가 있다. 그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각자의

인생도 창조한 신, 그리고 정의롭고 선한 의지로 자연과 역사를 운행하는 신, 유한한 인생과 역사의 끝에 영원한 시간, 초월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이끄는 신, 바로 그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누면 온전해진다’는 명제는 역설이 아니라 모순이고 헛소리가 된다. 하지만 만약, 가시적인 이 세상과 역사 너머에 초월적인 세상이 있다면 이 명제는 진리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역설이다.
그럼 만약 처음부터 신의 존재나 초월적인 시공간을 믿지 않는 무종교인은 어떤가?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도 성서의 이 말씀은 무의미하지 않다. 무종교인이라도, 경제적 안정 한 가지가 인생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돈은 행복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어도 절대로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필요 조건’으로서 재산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을 지도 모른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먹고, 소비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물건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예수가 말하는 재산의 나눔은 재산만의 나눔이 아니라 존재의 나눔, 마음과 정의의 나눔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나눔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의지가 되어 주며 사랑과 신뢰, 희망이라는 보석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의 말씀은(행 20:35)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그 ‘복’은 다양한 양상을 띠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반복된 실천을 통해, 그 사람을 총체적으로 넓고 깊은 사람이 되게 성숙시키기도 한다.
Addition by subtraction! 나눔이 온전하게 하듯이 인생은 뺄셈이 곧 덧셈인 경우가 종종 있다.

기자칼럼



전지은 기자
(uptoillie20@jj.ac.kr)

2023년 7월 21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을 발단으로 전국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발생했다. 그중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칼부림과 8월 5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살인 미수 사건을 두고 정신질환을 강조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흥기로 찌른 피의자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지만 치료받다가 거부했다." (2023년 8월 7일 조선일보 기사 분당 칼부림도, 교사 습격도... '치료 거부한 정신질환자' 중 발체) 외에도 다수의 언론에서 범죄 가해자의 범죄 사실과 별개로 정신질환을 부각하여 사건을 보도했다. 그러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3조(범죄 사건 보도 등) 제5항에서 명시하듯 방송은 범죄 사건 가해자의 정신 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정신질환을 범죄행위의 원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의 편파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강화하며 대중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그 객관적인 수치

박지선(공식 통계와 비교해 본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인식, 2016, 27pg)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8개 유형의 범죄(살인, 강간, 방화, 폭행, 강도, 절도, 사기, 묻지마 범죄)에 대하여 범죄자들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를 연구 대상의 추정치를 조사하고 추정치와 공식 통계상의 수치를 비교했다. 그 결과, 여러 범죄 유형을 통틀어서 정신질환자의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범죄 유형에 있어 사람들의 추정치는 공식 통계보다 최소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강력 범죄 가운데 살인, 강간, 방화의 경우 각각 범죄자의 약 1/4이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추정하는 등 편향된 인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익, 전미나(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2016, 302pg)의 연구에서도 국적과 전문성을 막론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정신질환이 범죄로 이어질까?

정신질환 편견이 만드는 악영향

2021년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나 정신장애로 진단받은 사람 중 12.1%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이는 미국 43.1%(2015년), 캐나다 46.5%(2014년)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신 의료 서비스의 낮은 이용률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 구성원이 가지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정신질환 환자의 범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을까?

2020년 경찰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정신질환자의 범죄 비율은 1,000명 중 1명꼴로 전체 범죄율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미국국립보건원에서는 "대다수 조현병 환자의 폭력 위험성은 작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조현병 환자가 저지르는 폭력 범죄의 절반 이상은 첫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결국 빠른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대다수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편견으로 치료를 꺼린다고 분석했다. (2019년 4월 22일 KBS 뉴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범죄 가능성 더 높을까? 중 발체)

조현병, 공황장애,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은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년 2월 13일 닥터나우 조현병이 뭐가요? 조현병 증상부터 완치까지, 조현병의 모든 것 중 발체) 그러나 조희 수를 위한 자극적인 보도는 편견을 키우고, 대중의 편견은 정신질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률을 낮춘다. 따라서 언론은 피의자의 정신질환 사실 여부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소견을 철저한 조사 끝에 보도해야 하며, 방송심의를 준수해야 한다. 또, 이를 소비하는 독자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정신 건강 이해력에 관한 연구나 대중들의 인식 개선에 대한 프로그램, 캠페인이 중요한 실정이다.

기자칼럼



하늘 기자
(neul0603@jj.ac.kr)

한 편의 낱말 영화를 보는 듯하다. 여름의 절정에 다가갈수록 치솟는 한낮 기온처럼 공포감 역시 커지고 있다. 구설에서나 불 법한 잔혹 이야기가 실화가 되어 버렸다. 서울 시내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포비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신림동 묻지마 흥기 살인'의 여파가 가시기 전, 분당 서현역 근처에서 모방 범죄 양상을 띠는 흥기 난동이 발생하였다. 이후 온라인 상에는 살인을 예고하는 글 200건 이상이 게시되었다. 범죄 장소로 언급된 장소에는 경찰 기동대, 경찰 특공대 전술 팀이 투입되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일본에서 게시된 '아키하바라에서 사람을 죽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7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를 낳아 냈다. 본문의 "먼저 차로 돌진하고, 차를 쓸 수 없게 되면 나이프를 사용할 겁니다. 모두 안녕" 내용은 현실이 되어 버렸다. 글이 게시된 지 7시간 후 도쿄의 전자상가 아키하바라에서 2t 트럭이 횡단보도 행인 5명을 덮쳤다. 트럭이 택시와 충돌하자, 미리 준비해 둔 단검을 들고 내려 일면식 없는 어느 행인을 인정사정없이 찔러 냈다. 살인범의 진술에 따르면 서현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샌다이 트럭 폭주 사건과 아라카와오카 역의 칼부림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모방 범죄였다.

살인범은 유년기 학대의 기억과 비정규직이라는 생활 염증을 해소하고자 애꿎은 피해자를 탄생시켰다. '신림동 묻지마 흥기 살인' 피의자 역시 "나도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열등감이 범행 동기로 작용하였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분포되었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전동차 사달이 국민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 유명 가수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던 몇 승객의 호응이 발단이었다. 동시다발적으로 들

포비아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려오는 호응 소리를 비명으로 오해하여 "흥기 난동을 벌이고 있다", "독가스 테러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불안이 자아낸 망상이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고, 열차는 정차하였다. 급하게 대피하며 떨어뜨린 승객의 분실 물과 부상은 전동차를 삼시간에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와 동시 살인 예고로 인해 외출을 꺼리는 걱정이 반영된 웹서비스가 급상하고 있다. 대학생 개발자들이 게시글에 언급된 장소, 작성자 검거 여부 등 지도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이트 개발 이틀 만에 누적 방문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혼돈에 빠진 사회를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청년 세대가 있는 반면, 살인을 예고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들도 있다.

사회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살인 예고 글 작성자의 연령대이다. 검거된 작성자 중 절반 이상이 10대였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실제 살해 의도 없는 단순 장난글이었다.", "관심을 끌기 위해 작성한 글로 사건이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로 글을 작성했는지도 모른다. 타인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즐기는 듯하다. 민폐 되는 행위를 자각하지 못할 만큼 둔감해진 도덕성이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청년·청소년 계층이 살인 예고로써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자체로 인한 사망, 의료 서비스의 과부하로 인한 사망, 만성질환·정신질환 치료 접근성의 저하는 코로나의 위협으로 꼽히는 대표적 예이다. 이외 코로나 여파가 시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건강의 문제, 자살 문제

등이 시간이 지나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외국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폭발의 시기를 현시점으로 유추할 수 있다.

'금쪽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의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초6 아들' 사연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모친의 목을 칼로 위협하는 것은 물론,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폭력적인 언어 선택과 주먹질은 모친과 주변 출연진들에게 경악을 안겨 주었다. 오은영 박사를 비롯한 출연진은 모친의 고민에 대한 육아 조언을 구해 주고자 아들의 이상 행동의 원인에 대해 짐작하는 바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모친은 6개월간의 병동 생활과 코로나 격리로 인한 폐쇄병동 입원을 이유로 꼽았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후 불안, 우울, 분노를 호소하는 사람의 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포비아와의 전쟁 원인을 충분히 조사하고 과학적인 대체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노력으로는 자신의 주위 분노와 절망을 키워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인식에 그치지 않고 차별과 따돌림으로 이어지면 우리 사회는 영원한 포비아의 전쟁에 갇혀 살게 될 것이다. 결핍을 인정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방법이 무엇인 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이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흥흥한 소식 속에도 태연하게 다가온 입추(立秋)처럼 화합과 친선이 가득했던 이전 사회 모습 또한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포비아와의 전쟁 선포가 철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교수칼럼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김지웅 교수
(농식품경영학과)

전주대학교에 성인학습자(만학도, 재직자전형)들이 다닌다는 걸 아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본인 또한 관련학과로 오기 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학과였다. 하지만 2021년 농식품경영학과(농생명ICT)로 오게 되면서 배움에는 나이, 성별,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다. 이제 농식품경영학과는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그 첫 졸업생은 부부 학생이고 둘 다 조기 졸업 대상자들이다. 오늘 이 지면은 그 조기 졸업을 하는 김O훈 학생의 수기를 소개하려 한다.

“2019년 어느 날 오후 아내와 둘이 집 근처 가까운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집사람이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다. 평소에 그런 의지를 내비치곤 했지만 어느 때보다 진지한 아내의 말에 문득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지인의 말이 떠올랐다.

(중략)

그렇게 시작한 나의 대학 생활, 처음엔 그저 그러저러 시간이나 때워 학위나 받자는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은 확실한 목표가 되었고 어느덧 나의 비전이 되었다.

‘이왕 할 거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할 거면 최고가 되자’라는 평소 나의 철학 같은 신념은 나의 마음을 달구기 시작했다. 나에게 맞는 공부계획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이다. 아침 5시 이전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는 새벽 시간을 활용해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갔다. 현재 4학년이 된 영어와 파이썬, 푸드테크, 농업경영, 스마트 팜, 리빙랩 퍼실리테이터 등 나의 학문적 전문성과 다양성을 키워준 학과 수업들! 텃밭을 일구어 작물재배학을 배우고 화훼 장식, 각테일과 와인, 커피, 세계 전통 음식들을 알아가며 직접 체험해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정무역 1호 인증 와인 상품을 개발한 실무 학습! 캡스톤디자인, 팀 프로젝트,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는 물론 학교 축제, MT, 학회장으로 단대 학생회 활동 등의 폭넓은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생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우선 적으로 참여했다. 나에게 대한 도전과 투자는 나에게 자연과학계열학위와 인문사회계열학위 등 융합 전공으로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나의 대학생활은 올해 8월이면 끝이 난다. 조기 졸업을 하기 때문이다.”

이 지면을 통해 전주대학교의 또 다른 성인학습자들에게 대학이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통로가 되기를 교수로서 소망한다.

사설

학교 내 동아리에 참여하자

지난 학기, 우리 학교 중앙동아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중앙동아리에 가등록한 상태인 A동아리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인 성희롱과 임원진의 방관, 임원진의 동아리 회비 횡령 등의 사실이 확인됐으며, 중앙동아리연합회장의 불건전한 사생활이 밝혀져 우리 학교 내 동아리에 대한 인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동아리 소속 동아리들은 방학동안에도 활동을 하고 SNS로 신입을 모집하는 등 동아리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찾아오면 우리 학교에서 가장 큰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의 주인공은 언제나 학생들이다. 학생들을 위한 체험 부스가 늘어서고 맨인블랙, 워포, UCDC 등 여러 동아리가 축제를 빛낸다. 이들은 자신의 관심사나 열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실현한다. 대학 생활은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기이다.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 학점이 높을수록 성실하게 다녔음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학점만으로 개인의 능력과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지원자의 동아리나 대외활동 경험을 물어본다. 이는 학점만으로 알 수 없는 타인과의 협력, 존중 등 중요한 능력을 알기 위해서이다.

현재 우리 학교의 중앙동아리는 종교, 봉사, 학술, 취미체육, 문화예술 등 5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총 54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중앙동아리는 전공이나 학과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는 곧 학생들이 대학 생활 동안 전공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또한, 동아리는 공동된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므로, 친목을 형성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쉬운 환경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교 커뮤니티 어플 ‘에브리타임’에는 동아리 관련 질문들이 종종 올라온다. 그중 눈에 띄는 질문으로는 “OO 동아리 어때요?, 2학기에도 모집하나요?”와 “성격이 내성적이면 동아리 들어가도 적응하기 힘들겠죠?”가 있다.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과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임에도 내성적 성격 때문에 동아리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의 질문들이다. 상반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둘의 공통점은 대학 생활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동아리는 그 분야의 열정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특별한 장소다.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만의 고유한 성향과 능력이 동아리 내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동아리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동아리에 도전해 보길 권장한다. 동아리 활동은 학교생활을 더욱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며, 그 경험은 평생 가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신문방송국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박진배
주 간 | 김주란
편집장 | 송민호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쇄: (주)다올
인터넷신문: news.jj.ac.kr

나의 좌우명(座右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편용우 교수
(일본언어문화학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줄여서 ‘중꺾마’가 유행한 적이 있다. 유명 축구선수가 시합 후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사실 유명 축구선수가 쓰기 전에 내가 후배들에게 자주 해주었던 말이기도 하다. 내가 원조는 아니지만, 나의 좌우명처럼 자주 쓰던 말인지라, 이 글의 제목만 보고 내가 따라했다고 오해받으면 억울하다.

우리말에는 보통 ‘의지가 꺾이다’라는 표현은 있어도 ‘마음이 꺾이다’라는 표현은 잘 쓰이지 않는다. 내가 이 말을 쓰게 된 것도 일본어를 공부하다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어로 ‘마음이 꺾이다(心折れる)’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이나 생각이 어느 한 쪽으로 향하다. 혹은 마음이 약해지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포츠 선수들이 즐겨 사용한다는 보충 설명이 추가되어 있다(『デジタル大辞泉』小学館)

사실 유학 생활은 힘들다. 연구생, 석사, 박사를 합쳐 9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나에게는 특히 그랬다. 내 주위의 많은 유학생들은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짐을 쌌다. 대만과 이탈리아에서 왔던 내 입학 동기들도 연구생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련 서적과 논문을 아무리 읽고, 컴퓨터 앞에 며칠을 앉아 있어도 논문을 한 줄도 쓰지 못할 때에는 내가 여기서도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낙천적이기도 한 성격 탓일까. 고민하다가도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덧 뒤돌아보니 석사와 박사로 진학해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후배들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나처럼’ 진학하고 논문을 쓸 수 있는지 상담을 해왔다. 그때마다 해주었던 말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다. 주위에서 힘든 일이라고 만류해도, 혹은 난 안된다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니까. 흔히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위의 선입견과 차별은 얼마든지 깰 수 있다. 하지만 색안경과 선입견, 유리천장을 자신이 지레 짐작 만들어버리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런 것들이 마음을 꺾이게 하는 요소들이다.

모든 일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의 성과가 초라해 보이기도 한다. 그건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보지 않아서이다. 나도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할 수 있다는 마음, 또 그런 마음을 실천하는 행동이 쌓이면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있다.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만 유독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온다고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상황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씩 유리하게 바뀐다. 만약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Truth Investigation Committee, "Federation President, Disciplinary Procedure will be Carried Out If the Vocation is Poor"

- In response to a request to share the progress of the fact-finding committee's investigation into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president of the federation, "As a student autonomous organization, there is no right to investigate and no judicial power... I am waiting to avoid breaking the law"

- They plan to request materials for face-to-face inquiries and refutations from the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n August 1st.

- They said "If you fail to submit data within the deadline or fail to refute, we will proceed with disciplinary procedures"

The Fact-Finding Committee under the Central Steering Committee (Chairman Bae Ji-ho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act-Finding Committee') will take disciplinary action if the refutation data for the controversy raised to the president of the Central Club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ederation President') through Everytime is not submitted within the deadline. They were sternly warned that they would proceed with the procedure.

On the 28th, the Truth Investigation Committee revealed the status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president of the federation. First, regarding the non-disclosure of the progress, the Fact-Finding Committee said, "We tried to share additional positions and progress, but the Truth-Finding Committee is a university organization without investigative and judicial powers, and the lawyer's request to avoid acts that violate the law", "I am sorry for appearing to be silent without answering anything" he said.

Then, they said "We confirm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matters received by the Truth Investigation Committee and the legitimacy of the handling method, etc., and discuss the direction of progress, such as sharing the contents with the school, to reveal that (the investigation process) will inevitably take time" asking for forgiveness.

The first issue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was transferred to the human rights center on campus. The fact-finding committee said that it could not take action in a situation where there was no official basis such as a related precedent as an organization within the university that could not have investigative and judicial powers. Instead, the Human Rights Center will receive related materials and conduct the investigation.

Additionally, as the fact-finding committee was informed of the negligence of the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n August 1st(Tuesday), face-to-face inquiries and refutation materials will be requested. If the fact finding committee does not submit the data despite the above guidance,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Student Autonomous Organization, a fair disciplinary procedure will be proceeded with. If punished through the provision, budget cuts or even impeachment are possible.

The Truth Investigation Committee added, "We are doing our best not to disappoint you. If you are not trustworthy, personal criticism, slander, or slander against me (Chairperson of the Fact-Finding Committee) is fine. However, I ask that you refrain from slander or slander that generalizes the entire student council executive team" This seems to be conscious of the public opinion of 'student council incompetence' that is spreading around Everytime.

- Bylaws of Jeonju University Student Autonomous Organization Regarding Discipline

Chapter 6 (Discipline) Article 72 (Reasons) In the case of the following reasons, the Central Committee may warn the relevant organization through a transfer meeting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budget cuts.

4. In the case of not performing all duties

5. In the case of the violation of this Bylaws

6. Other cases where a warning is approved through a transfer competition

Chapter 6 (Discipline) Article 73 (Expulsion and Impeachment) In the case of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the Central Committee may submit an agenda of expulsion or impeachment of the president/vice president, chairperson, or head of the organization at the transfer meeting.

1. If two warnings are accumulated (However, the cumulative period of warnings shall be the term of office of the head of the relevant autonomous organization.)

5. If the degree of the incident caused by violating this bylaw is serious

2023 Student Autonomous Organization Interim Audit Concluded

- The Central Audit Committee (Chairman Kuk Dan-o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ral Committee') announced the outcomes of the 2023 student self-governance interim audit on Instagram on Friday, the 7th.

The audit targeted the Student Council, the Central Club Association, affiliated organizations of the Central Steering Committe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special autonomous organizations (Library Autonomy Committee, JJ Soccer League Committee), and the student councils of eight colleges. The audit covered a total of 373,193,246 won (51,474,230 won for student membership fees, 217,960,092 won for school fees, 61,127,146 won for freshman dues and other charges, and 42,631,778 won for carryover).

Firstly, the student council received an A+ grade with 0 won (0%) and 100 points of appreciation out of a total budget of 12,069,446 won (student union fee of 12,069,446 won). The Central Club Association utilized 0 won (0%) out of a total budget of 13,370,042 won (student membership fee 4,910,682 won, freshman dues and other charges 6,600,000 won), earning audit scores of 84 points for student union fees and 78 points for freshman dues and other charges, resulting in a C+ and C0 rating respectively. In the audit, one case of non-submission of transaction details and incomplete receipts for the use of student membership fees and two cases of non-submission of transaction details and receipt books for freshman membership fees and other charges were identified. Consequently, the Central Club Association faced two weeks of budget execution suspension and three weeks of budget execution suspension, respectively.

Among the college student councils, four units were not subject to dispositions: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College of Engineering, College of Cultural Convergence, and College of Education. The unit with the highest student council spending ratio was the liberal arts college. SIGNAL College of Humanities' student council spent 941,700 won (student union fee 361,600 won or 11.93%, academic fee 580,100 won or 21.92%). The audit scores were 80 points for student union fees, 87 points for academic school fees, and 87 points for freshman dues and other charges. Consequently, they received a C+ (2 weeks of budget execution suspension), D0 (5 weeks of budget execution suspension), and B0 (1 warning) grade and disposition. The reasons for deductions were exceeding the standard (15%) for the amount used for the student union fee, inadequate receipts, missing seals, and insufficient receipt books.

The departmental student council that received the highest disposition was the Department of Chinese Studies, dispositioned to 'write a major character.' Out of a total budget of 979,499 won (960,000 won for tuition, 19,499 won for carryover), the student council spent 0 won (0%) and received an audit grade of B0 with a score of 88 points. However, due to the accumulation of two warnings, it was subjected to a 48-hour release after the posting of the pos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Details of Punishment) of the Audit Enforcement Rules of Student Autonomous Organizations. This was due to two instances of incomplete receipt book account transfer documents and two or more individual account transfer details, along with student union fee account transfer details.

The student council of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excellent college student council sector), the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excellent department sector), and the Department of Arts and Psychotherapy (excellent department sector) were selected as outstanding autonomous organizations for auditing.

The mid-term audit was initially conducted from June 19 (Monday) to June 27 (Tuesday), and the results were planned to be announced on June 30 (Friday). However, the results were announced on Friday, July 7, a week later. There was no notice of a delay in announcing the audit results. In response, the Central Committee explained, "Insufficient time to review documents due to overlapping schedules of reinforcement week and rural volunteer activities led to the extension of the audit by one week. Furthermore, a power outage on the day of submitting incomplete documents at the school contributed to the delay."

Regarding the discrepancy in the total budget being less than or greater than the sum of the membership fee and carryover amount, the Central Committee clarified, "The total budget slightly var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tonomous organization. It was calculated by adding the carryover amount, allocated academic fee, freshman dues, carryover amount, and registration fee." They also noted, "In some departments, there were objections and Q&A due to calculation errors."

When asked about the focus of this year's audit compared to last year's controversy over the standard of punishment for unused student dues in the first semester, the Central Committee emphasized, "This year, the focus was on understanding the audit rules. We verified how well the bylaws were understood, whether budgets were used according to standards, and whether evidence was sufficient."

| article by reporter Son Min-ki(minki70064@jj.ac.kr)
| editor & translated by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 article Public Relations Office for External Cooperation
| translated by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全罗北道，八月起出租车基本运价从3,300韩元上调至4,300韩元

6月30日，消费者政策委员会通过基本运价上调方案 - 8月1日起，基本运价为4,300韩元……全州市“鉴于出租车运费上调幅度维持市区外提价率”

随着全罗北道出租车基本运价上调至4,300韩元，全州市内的出租车基本运价也同样上调。此次上调是自四年前2019年出租车起步价从2,800韩元提至3,300韩元以来的再次提价。

全罗北道于6月30日进行了消费者政策委员会审议，通过了出租车基本运价上调方案，该方案将于8月1日起实施。

此次出租车基本运价上调，是从之前3,300韩元的基本运价（2千米）上调至4,300韩元（1,000韩元，▲30.3%）。车公里运价将从每137米100韩元上调至到每134米（▲3m）100韩元。等时费将从每33秒100韩币上调至每32秒100韩元（▲1s）。夜间行驶费提价率（20%）保持原有基准。

与今年其他地方政府上调的出租车基本运价相比，全北道的出租车基本运价上调幅度较大。7月上调出租车基本运费的光州广域市与釜山广域市分别是3,300韩元上调至4,300韩元（▲1,000韩元，30.3%）、从3,800韩元上调至4,800韩元（1,000韩元，▲26.3%）。4月上调运价的江原道是从3300韩元上调至3800韩元（500韩元，▲15.1%）。与其他地区相比可知，全罗北道出租车基本运价上调的幅度较大。

在校A同学表示：“由于物价上涨，出租车起步价自然也会上涨。”同时他也表达出了对出租车基本运费上调的担忧：“不过（上调后的价格）也不可避免地成为一种经济上的负担。”

因此，考虑到出租车基本运费上调给消费者带来的经济压力，全州市表示，市区外将维持原有提价率（50%）不变。

"国际交流院，留学生迎初伏分享参鸡汤活动"



全州大学，留学生迎初伏分享参鸡汤活动 - 通过地区关爱帮助留学生尽快适应留学生活

全州大学（校长朴珍培）在韩国健康管理协会全北支部（本部长 KIM MIN SOO）的赞助下，于7月12日为七个国家的五十多名留学生举行了迎初伏分享参鸡汤活动。

赞助当日活动的韩国健康管理协会全北支部指出，此次活动的宗旨是慰问并鼓励放假期间滞留在国内的来韩留学生，同时向他们介绍韩国的文化。

柬埔寨留学生YEM VANNA(经营系)说道：“感谢迎初伏时关心并帮助我们这些留学生的人，正是因为有他们，我们在韩国的生活才会这样愉快”，“在炎热的夏天吃参鸡汤，这让我体会到了守护健康的意义。”

韩国健康管理协会全北支部本部长 KIM MIN SOO表示：“希望我们能为那些离开故乡、来到我们这里一起生活的外国学生提供力所能及的帮助，让他们能够为实现自己的梦想而投身于学业”，并承诺：“今后将持续给予他们更多的关心和帮助。”

此外，全州大学还与地区社会合作，通过与留学生文化教室、寄宿家庭、地区医院等合作，开展留学生健康管理等多种支援项目。

Lễ tốt nghiệp kỳ tháng 8 năm 2023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Mặc dù đạo gẫn đây dịch covid 19 bùng lại nên kỳ tốt nghiệp năm nay vẫn không được diễn ra hoành tráng như những năm trước thế nhưng các lễ trao bằng vẫn được diễn ra tại các khoa và các bạn sinh viên vẫn có thể mượn quần áo tốt nghiệp trên khoa mặc đến những khu vực chụp ảnh được bố trí sẵn trong các khoa và campus của trường để lưu lại những hình ảnh ý nghĩa và đẹp nhất trong đời.

Lễ tốt nghiệp năm nay có tổng 148 cử nhân quốc tế tốt nghiệp trong đó có 81 người tốt nghiệp đại học, 34 người tốt nghiệp tiến sĩ và 33 người tốt nghiệp thạc sĩ trong đó có 24 thạc sĩ Trung Quốc, 4 thạc sĩ Việt Nam, 2 thạc sĩ Mông Cổ, 1 thạc sĩ Mianma, 1 thạc sĩ Uzbek và 1 thạc sĩ Campuchia.



Lễ tốt nghiệp mùa thu năm nay không chỉ đơn thuần là một sự kiện chấm dứt khóa học, mà còn là một sự kiện kỷ niệm cho những nỗ lực, sự kiên trì và đam mê mà các tân cử nhân đã dành trong suốt những năm tháng đại học. Dưới bầu không khí hân hoan, những cử nhân tốt nghiệp đã có cơ hội cùng nhau nhìn lại quá trình học tập với những kỷ niệm đáng nhớ, cùng nhau chia sẻ những khó khăn đã vượt qua và cùng nhau đón nhận những thách thức mới trong tương lai.

Tốt nghiệp không chỉ là sự hoàn thành của riêng từng người cử nhân, mà còn là sự tự hào của gia đình, bạn bè và cả cộng đồng. Những nỗ lực và sự đổ mồ hôi đã được đền đáp xứng đáng trong những buổi lễ trọng đại này. Đồng thời, đây cũng là cơ hội để các tân cử nhân tỏ lòng biết ơn và tri ân những người đã luôn ở bên cạnh họ trong suốt chặng đường học tập.


Đây không chỉ là sự kết thúc một chương sách mà còn là sự mở đầu cho một câu chuyện mới, nơi mà những cử nhân sẽ viết tiếp bằng những thành công, sự đóng góp và những ước mơ mới. Chúc mừng tất cả các bạn cử nhân và hy vọng rằng tương lai sẽ mang đến những điều tốt đẹp và thú vị!

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

2023학년도 2학기 신입 모집

수비스타를 키우는 곳
전주대학교



지원서는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일반)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확인하세요!)

대학신문사 신입기자 모집

모집 부문

- 취재부
 1. 교내 사건·사고와 행사 취재
 2. 인터뷰 준비 및 진행
 3. 취재 사진 촬영
 4. 신문 기사 작성
- 편집부
 1. 일러스트 및 기사 배너 제작
 2. 신문 디자인 기획 및 제작

교육방송국 신입국원 모집

모집 부문

- 기획부: 영상 기획 및 제작 총괄
- 편집부: 영상 및 이미지 편집
- 아나운서부: 라디오 진행 및 리포터 활동

활동 혜택

- 정기자·정국원 선발 시 미디어장학금 지급
- 신문방송국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 취재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 학기 별 CP포인트 지급
- 각종 어도비 프로그램 비용 지원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프리미어프로 등)

지원 절차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면접 일정 협의
- 면접 진행 후 합격 여부 통보

대학신문사 문의처

- 사무실: 학생회관 320호
- Phone: 063-220-2442
- E-mail: news@jj.ac.kr

교육방송국 문의처

- 사무실: 학생회관 322호
- Phone: 063-220-2445
- E-mail: jeps@jj.ac.kr

신청 기간 8.13 ~ 9.15

지원서 확인 후 개별 연락